

# 출구 없는 '조국 정국'

### 輿 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 한국당 "수사 방해" 반발 민주 "민생 챙기자" 제언...한국당·바른미래 "임명 철회" 고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포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방해이자 국면전환 카드라며 전방위 투쟁으로 맞서는 등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나 민생이냐'는 프레임에 내세우며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내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정점으로 규정하고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통해 야당과의 차

별화를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의시킨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 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18일 사법개혁 당정을 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정회의를 지렛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하고 조 장관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이다.

공보준칙 개정에 검찰 수사 방해의 의도가 있다는 보수 야당들의 주장과 관련, 조 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 조국 공조'에 대해서는 '반 개혁 연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나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격했다. 지난 한달간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언급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 검토

### 내일 당정협의...공수처장 임명방식·기소권 등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수정안을 위한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당정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사법개혁안 전반과 관련한 당정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여야간 이견으로 2개의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 등을 더 논의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 백해련 의원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경우 백 의원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한 반면, 권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런 이견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뒤 수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황교안의 승부수? ... "조국 사퇴" 청와대 앞 식발

### 한국당 지지율 확보에 범야권 투쟁 동력 결집 유도 내부 결속 다지기 의도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식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를 내걸고 식발을 감행했다.

황 대표가 식발 투쟁에 나선 것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식발 투쟁식 장소도 당초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국회나 광화문 광장이 아닌 청와대로 정한 것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국 정국'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당층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한국당으로의 지지층 흡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당 안팎에서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원내외 투쟁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안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적은 있으나 제1야당 대표가 식발 투쟁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다. 이에 따라 황 대표의 식발 투쟁을 계기로 '귀족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다니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앞서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과 관련해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방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 방해를 계

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짚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히려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쟁 중단, 민생 올인이라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파

## 나경원에 부메랑 된 자녀 부정 의혹

### 시민단체, 아들 논문 제1저자 등재·딸 입시문제 고발

아들이 부당하게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해외 유명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과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의대 운동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학 포스터(광전유적맥파와 심탄동도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

한 도움을 받아 2014년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 때의 공학 포스터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실제 삼아 에일리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또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 등에서 공정한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김기태 상근 부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제기된 의혹과 나 원내대표 아들·딸에게 제기된 공학 포스터(광전유적맥파와 심탄동도 활용)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

## 정병국 "孫 퇴진 거부시 중대 결단"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6일 "이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를 사퇴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출신의 비당권파인 정 의원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는 4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라고 사퇴 조건을 내걸었다. 이제 약속의 시간이다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155일이 지난 지금, 추석은 지났고 우리 당 지지율은 의석수 6명인 정의당(6.2%)보다 못한 5.2%를 기록하고 있다"며 "155일의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했다.

그는 "손 대표는 젊은 혁신위원들을 뽑고 당권을 연장했으며, 퇴진을 요구하는 당직자들은 무더기 해임했고, 혁신위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인사들을 고소했다"며 "그럼에도 침묵을 이어온 것은 약속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의 내용이야 견뎌낼 수 있지만, 당 대표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중대 결단"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 Auction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후계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형)**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형)**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